

‘국민 중심 데이터 연계·활용’으로 데이터 생태계 구축 본격화

- 국민주권정부 1년, 국가데이터·통계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 상황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6월 2일(화), 국민주권정부 1년 동안의 국가데이터·통계 분야 주요 성과와 추진 상황을 발표하였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1년간 ‘국민이 믿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라는 비전 아래,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 1.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

국가데이터처는 국가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7일 국회 발의하였다.

법안에는 국가데이터 총괄·조정, 국가 차원에서 중요도가 높은 국가데이터 지정·관리 및 연계·활용, 품질관리,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지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정책과 활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공과 민간 간 협력을 강화하였다.

【 2. 데이터 가치 제고 】

AI가 통계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 메타데이터(온톨로지) 구축을 추진 중이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동형암호, 재현자료 등 데이터 보호 신기술 도입도 진행 중이다.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연계한 정책맞춤형 융합데이터 개발도 본격화되어, 작년 11월에는 중소기업통계 DB를 서비스했고, 올해는 고령자, 사망자, 주택소유자에 대한 융합데이터를 구축하여 연내 서비스할 예정이다.

【 3.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 】

재화·서비스의 지역간 이동을 보여주는 지역공급사용표를 개발·공표하였고, 생활인구 작성 지역도 기존 89개에서 107개로 확대하여 지역균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원했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동태패널통계를 개발하여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른 혼인·출산 변화를 파악하고, 청년 삶의 질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지표도 개발·분석하였다.

고립·은둔 현황 등 국민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고, 사회불평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연계를 추진 중에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및 경제총조사 결과가 공표되며,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장래인구추계 작성 등 각 분야별 통계의 개선·개발 결과도 공표될 예정이다.

【 4. 국가통계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

국민이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와 ‘업종 통계지도’ 등 국민 참여형 통계정보서비스를 확대하였다.

또한 이번 6월부터 통계데이터센터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야간 및 주말에도 시스템 중단 없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산업 특수분류 개발·개선을 타 부처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정사업본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집배원이 가구를 방문·조사하는 등 어려운 조사환경 극복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AI시대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국가자산”이라며, “데이터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활용으로 국가 현안 해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국가데이터처 주요 성과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진석 (042-481-2584)
		담당자	사무관	손현정 (042-481-2128)
담당 부서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임경은 (042-481-2181)
		담당자	사무관	강속희 (042-481-2134)
담당 부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서영 (042-481-2233)
		담당자	사무관	이성숙 (042-481-2240)
담당 부서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지은 (042-481-6959)
		담당자	사무관	손경국 (042-481-2314)
담당 부서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영 (042-481-2313)
		담당자	사무관	김민주 (042-481-2382)

붙임

정부 1주년 국정성과 보고 국가데이터처 주요 성과

2026. 6.



국가데이터처

목 차

I. 업무 추진 방향 1

II. 주요 추진 성과

1.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2

2. 데이터 가치 제고 3

3.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 4

4. 국가통계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5

1. 업무 추진 방향

비 전

국민이 믿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

추진 방향

주요 추진 성과

1.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 ① 국가데이터 관리 및 활용 기반 조성
- ② 데이터 소통체계 구축

2.
데이터 가치
제고

- ① 데이터 품질·활용 제고
- ② 정책맞춤형 융합데이터 개발

3.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

- ①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지원
- ② 인구위기 극복 및 청년정책 지원
- ③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사회정책 지원

4.
국가통계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 ① 국민에게 편리한 통계정보서비스 확대
- ② 통계·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 ③ 대내외 협력을 통한 통계·데이터 발전 선도

II. 주요 추진 성과

1]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1) 그간의 성과

□ (국가데이터 관리 및 활용 기반 조성) 국가데이터의 관리체계 구축과 데이터 이용 장벽 완화를 위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

- 국가데이터* 총괄·조정,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 및 연계·활용, 국가데이터 분류체계 및 품질관리 규정 마련**

* 공공안전, 재난대응,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활용이 필요한 인구·산업·고용·안전·보건·환경 등 분야의 데이터

** 연구용역 및 협업 연구(국가데이터연구원·법제연구원) 기반 세부 내용 구체화 지속

- 안전한 환경에서 국가데이터 연계·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국가데이터 이용센터*로 지정

* 기존 지역별 통계데이터센터(SDC)를 확대·개편하고, 국세통계센터,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등을 추가 지정하여 국민의 데이터 연계·활용 편의 지원

□ (데이터 소통체계 구축) 데이터 관련 민·관 전문가 의견 수렴과 최신 동향을 공유·논의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소통·협력체계 운영

- 국가데이터특별분과* 및 민관협의회**를 운영('26.2.~)하여 국가데이터 활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과 민간 간 협력을 강화

* 국가데이터 특별분과: 위원장^{민간},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8명

** 민관협의회: 공공기관, 민간기업, 데이터 전문가 그룹

▶ ('26.2월) 국가데이터특별분과

▶ ('27년) 국가데이터위원회^{신설(심의·의결기능)}

▶ ('26.2월) 국가데이터 민관협의회^{데이터 정책 관련 자문, 민관협력 기능}

2) 향후 계획

□ 「국가데이터기본법」 연내 제정 추진('26.5.27., 의원 발의) 및 관련 제도 고도화·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등 실시('26~'27년)

2 데이터 가치 제고

1) 그간의 성과

- **(데이터 품질·활용 제고)** AI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활용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추진
 - **(AI 친화적 메타데이터 구축)** AI가 공식통계DB 기반으로 환각 없이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AI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온톨로지*) 구축 추진
 - * 특정 분야의 지식을 구조화하여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의한 개념체계
 - **(데이터 보호 신기술 도입)** 데이터의 정보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해 동형암호* · 재현자료** 등 데이터 보호 신기술 도입 추진('26~'27년)
 - * 암호화 상태에서 보존 및 연계·연산처리가 가능한 기술 → 비밀 정보 노출 위험 제거
 - ** 원자료와 통계적 특성이 유사한 합성자료 → 원자료 노출 없이 AI 학습자료 개방 확대 가능
- **(정책맞춤형 융합데이터 개발)** 복잡한 사회·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민간으로 분산된 데이터를 융합하여 정책수립 맞춤형 지원
 - **(중소기업통계DB 제공)** 다양한 기업 정보 제공을 위한 중소기업 통계DB 구축 및 서비스('25.11.)
 - **(신규 융합데이터 개발)** 통계등록부 기반 공공·민간데이터를 연계하여 정책 맞춤형 융합데이터(3건) 구축
 - * (고령자) 주택, 취업활동, 연금·복지 등 결합 → 초고령사회 진입^{24,12}, 고령자 정책 등 활용 지원
 - * (사망자) 사망원인과 가구구성, 양육, 일자리 등 결합 → 자살자, 고독사 등 정책 수립 활용
 - * (주택소유자) 주택소유 현황, 공시가격, 부채 등 결합 → 주거·금융 등 정책 활용성 강화



2) 향후 계획

- 신규 융합데이터(3종)에 대한 데이터 간 연계, 품질 점검 및 DB 구축 (~'26.12.), 융합데이터 자료 제공('26년 말~)

3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

1) 그간의 성과

1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지원

- (지역공급사용표 개발) GRDP 정확성 제고와 지역의 산업·교역 구조 파악을 위해 시도별 공급사용표를 작성하여 최초 공표('26.5.)
- (지역맞춤형 생활인구) 생활인구 지역 확대(89개→107개) 제공('25.12.) 및 지방정부의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 지원

2 인구위기 극복 및 청년정책 지원

-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및 고도화) 특정 인구집단의 경제·사회적 특성별 혼인·출산 변화 등 통계 결과 공표('25.12.) 및 신규 지표* 개발 추진
* 개인부채 자료를 활용한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등 신규 지표 개발('26년)
- (청년 데이터 다각화) 다양하고 입체적인 청년 데이터를 제공하여 국민이 청년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정부의 청년정책 수립 등을 지원
* 청년통계지도 서비스('25.6.), 청년 한부모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25.9.), 청년 삶의 질 분석('25.12.),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25.12.)

3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사회정책 지원

- (국민 삶의 질 제고) 우리 사회 삶의 질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는 지표를 제공*하고, 사회불평등 파악을 위한 데이터 연계** 추진
* 사회조사 고립·은둔 현황 공표('25.11.) **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건강, 소득, 자산, 교육 등
- (가사노동 가치 측정)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 측정을 위한 가계생산 위성계정* 작성·공표('26.4.) 및 국민시간이전계정** 승인·공표('26.6.)
*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 측정 ** 무급 가사노동 가치의 생산, 소비, 이전에 대한 연령별 분포

2) 향후 계획

-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및 경제총조사 결과,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장래인구추계 작성 등 각 분야의 통계 개선·개발 결과 연내 공표

4 국가통계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1) 그간의 성과

① 국민에게 편리한 통계정보서비스 확대

-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이용자가 데이터*를 선택하여 다양한 통계 차트**를 만들어보는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 서비스 개시('26.4.)
* 인구, 경제, 보건·복지 등 16개 분야 264개 지표 수록 ** 15종의 다양한 차트 제공
- (통계정보 시각화) 생활밀접업종*과 뿌리산업**을 업종·매출·인구 측면에서 분석·시각화한 「업종통계지도」 제공('26.6.)
* 외식, 여가, 생활서비스 등 국민 일상 기준 업종 ** 제조업 기반 핵심 산업
- (통계데이터센터 분석시간 확대) AI 기술*을 적용하여 시스템 중단 없이 데이터 분석 지원(기존 주간 9시간→야간 및 주말 포함 24시간)('26.6.~)
* AI 코드 안정성 검사기 도입으로 통계분석 코드의 장애 위험을 사전 차단

② 통계·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 (AI 활용 및 데이터 통합 연구) AI를 활용한 통계 생산 방안 및 통계·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데이터 통합 연구 추진
- (AI·데이터 전문 인재양성) AI 활용 데이터 분석(입문, 심화)('26.5.~) 및 통계·데이터 교육 소외 지역·계층 문해력 역량 강화('26.3.~) 교육 확대 운영

③ 대내외 협력을 통한 통계·데이터 발전 선도

- (산업 특수분류 개발·개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성장 산업 및 국가 전략산업 분야 특수분류 16종* 제·개정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지원
*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우주항공산업 특수분류 제정,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개정 등
-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계조사 협력체계 구축) 국가통계에서 집배원이 가가호호 방문·조사하여, 통계조사 현장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
* 국가데이터처와 우정사업본부 간 업무협약 체결('26.5.), 가구주택기초조사('26년)와 지역별고용조사('27년) 2종에 대한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조사방식 적용

2) 향후 계획

- 지역데이터 확충과 신산업 특수분류 개발 등 인프라 강화 추진



국가데이터처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